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 -

2024. 2.



문화재청

순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	4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틀 마련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체계를 「국가유산기본법」과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
 - '문화재(財)' 명칭을 '국가유산(遺産)'으로 변경하고 ▲ 문화유산 ▲ 자연유산 ▲ 무형유산으로 개편, 각각의 법률 제·개정 완료
 - * 국가유산기본법('23.5. 제정), 자연유산법('23.3. 제정), 문화유산법·무형유산법('23.8. 개정)
-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서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담은 '국가유산 미래비전' 선포('23.12.8.) 및 대국민 홍보

2 국가유산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로 국민 편익 제고

- 보존지역 규제범위 및 규제강도 합리적 조정으로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추구
 - *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% 축소 (966만km²→531만km²)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최초 마련 ('23.10월 문화재보호법 개정)
- 문화유산 관람료 제도 개선*으로 국민갈등과 불편 해소,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 반출·해외 매매 가능(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)
- * '23.5월부터 전국 64개소 사찰 문화유산 무료 관람 전면 시행 →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(관람료 감면 이후 '22년 대비 관람객 약 33.6% 증가)

3 중요 국가유산 가치 발굴 및 역사성 회복

- 2023년 국보·보물·사적·무형 등 총 69건 국가유산 지정·등록
 - * 국보(4), 보물(38), 사적(5), 명승·천연기념물(7), 국가무형유산(5), 국가민속유산(2), 국가등록유산(8)
- 100년 만에 광화문 월대 복원으로 경복궁 중심축의 완전한 복원과 덕수궁 돈덕전 재건, 경복궁 계조당 복원 등 우리 궁궐의 역사성 회복
-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으로 오대산사고본 보존·연구 및 가치 확산 (평창 오대산 / '23.11월)

4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

-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속 등재,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
 - * '가야고분군'('23.9.), '4.19혁명 기록물', '동학농민혁명기록물'('23.5.), 세계유산위원회 당선('23.11.)
- 세계유산 영향평가(HIA) 국내 도입기반 마련 ('23.10. 세계유산특별법 개정)
- 국외문화유산 1,083건 1,550점 환수(대동여지도,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등), 특별전·언론공개회 등을 통해 국민 자긍심 고취
 - * 50년 만에 프랑스국립도서관 '직지' 공개 특별전('23.4월), 국외소재 활옷 특별전 개최('23.9월)

II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- 60여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출범(‘24.5.)
 - (국민행복 추구) 2024년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유산의 역할 재정립
 - *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, 제23조(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)
 - (패러다임 확장) 미래 잠재적 유산까지 보호대상 확대, 지역 활성화, 기후변화 대응, 산업 육성 등 정책영역 확대기반 마련
 - *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(포괄적 보호체계 마련), 제22조(기후변화 대응), 제27조(산업 육성)

▶ **그간의 보존·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,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 실현에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 수립으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미래가치 증진**
* (기본원칙) 新 가치창출, 국민의 능동적 참여·향유, 지속가능성, 공동체 활성화·지역발전 등

-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요구 증대
 - (보존-개발 간 갈등)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속 발생
 - * 국가유산 현상변경 처리건수 : (2018) 2,456건 → (2023) 2,911건
 - (미래성장 동력) 국가유산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자원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국가유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미흡
 - *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교류의 장인 '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' 역대 최대 규모 성과
↳ 96개 업체 참가, 331개 전시부스, 5,132명 참관, 국내외 바이어 137건 253억원 상담계약 등

▶ **과도한 규제의 지속적 개혁과 주민지원 상생정책 확대, 국가유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 수행**

- 급속한 정책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의 보호체계 강화
 - (정책환경 다변화)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, 지역소멸 가속화, 일상화된 기후변화, 반달리즘 등 국가유산 보존·전승 위기 직면
 - ▶ (고령화)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174명 중 70세 이상 127명 (73.4%, 평균연령 74.6세)
 - ▶ (지역소멸 위기)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 2000년 6개에서 2023년 19개로 급증
 - ▶ (기후위기)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 609건 중 최근 3년간 피해 296건으로 49%에 이름
 - ▶ (반달리즘) 10대의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과 연이은 모방범죄 발생 등

▶ **국가유산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회복, 국가유산 안전관리 고도화, 전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함양 등을 통해 국가유산을 둘러싼 위기에 적극 대응**

- **급증하는 국가유산 향유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증진**
 - (향유 수요 확대) 국가유산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인 관광의 핵심 콘텐츠, 국가유산 관광 2022년부터 회복 양상
 - *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 관광활동(67%) ('23년, 통계청 사회조사)
 - * 고궁·왕릉·세계유산 관람객 : '20년 1,858만명 → '22년 2,939만명 → '23년 3,392만명
 - (활용사업 성장과 한계) 고궁 중심의 활용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나, 여전히 국가유산 향유의 지역별·계층별 편차 발생
 - * 지역별 세계유산 관람객 현황 ('22년 세계유산 관람객 총 2,057만명 대비 지역별 비중)



→ 국민의 수요와 국가유산 향유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활용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, 보편적 향유서비스 확대를 지역별·계층별 향유 불균형 해소

- **국격에 걸맞은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기대**
 - (문화유산 강국) 우수한 유네스코 유산 등재역량과 선진적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증가
 - * 한국, 유네스코 등재유산 총 56건 보유한 세계 10위 유네스코 유산 강국
 - (국제사회 위기 대응) 코로나19 여파, 전쟁 등으로 글로벌 위기 지속, 주변국과의 문화 갈등 심화 등으로 인류공동가치 훼손 우려

→ 한국의 우수한 유산과 선진적 보존관리 체계를 전세계에 확산하여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

2 비전 및 추진과제

비 전	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
가 치	△ 혁신·미래 △ 보존·전승 △ 포용·상생
핵심 추진 과제	①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
	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
	③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
	④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
	⑤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

Ⅲ. 핵심 추진과제

1.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

① 국가유산 체제 출범

- (법제·조직 개편) '국가유산기본법' 시행일인 '24.5.17.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 관련 법령 정비 완료 및 국가유산청 출범 * 정부조직법 개정(24.1.)



- (미래비전 정책 발굴) 국가유산 미래비전(23. 12. 발표)을 토대로 국민의 편익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·수립
- (국내외 홍보)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출범 전후 계기별 다각적 국내외 홍보 추진
 - 누리집·안내판·교과서 등 국가유산 정보 정비(유관부처 협업), 언론·온라인 등 다중매체 활용 홍보, 대국민 캠페인, 국제학술대회 등 추진
 - * (행사계기 홍보) 궁중문화축전, 방문캠페인 코리아 온 스테이지, 무형유산 특별공연 등

②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

- (지정·등록 확대)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보 승격 등 유형별 국가유산 지정·등록 확대 추진
 - * (국보) 공예·회화·건축 분야 등, (보물) 사찰문 등, (사적) 고성 동외동 유적, 서울 탕춘대성 등
- (보존·복원) 세계유산, 국가지정·등록유산, 궁능* 등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따른 보수·복원 추진(24년 5,671억원)
 - *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(24~27), 창덕궁 돈화문 보수(24~26), 종묘 정전 보수(20~25) 등
- (역사문화권 조사·연구)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, 향후 정비 사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권별 중요유적 발굴조사 추진
 - * (24년) 백제, 신라, 가야 등 7개 문화권 8개 시·도 20개 유적 대상(38억원)
- (전통재료 수급)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·운영(24. 9.) 및 전통재료 인증제도* 시행
 - * 품질, 제작공정, 사용원료 등 종합적 평가·인증(24년 아교, 안료, 기와·전돌, 한지→25년 철물)

③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활용기반 정립

- (국립자연유산원 설립)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보존·연구·활용 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물적·인적기반 확보 추진
 - * (설립근거) 자연유산법 제47조, (주요기능) 연구·조사, 전시·홍보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등, (추진일정)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('24)
- (분야별 보존·활용) 천연기념물 동·식물, 전통조경, 지질유산 등 자연유산 분야별 맞춤형 보존·활용 강화
 - (동·식물유산) 동·식물 유전자원 보존, 서식환경 정비, 식물보호 분야 품셈 개정('24~'25) 등 기후·전염병 위기 대비 선제적 관리
 - (전통조경) 전통조경 관리기준 마련* 및 전통조경 공간 작품 공모전 등을 통해 전통조경 보존·활용 정책기반 조성(7.2억원/신규)
 - * 전통조경 표준품셈 마련('24~'26), 전통조경 공간 유형별·사례별 보존관리지침 배포('24) 등
 - (지질유산) 민간에서 보관 중인 화석·암석 표본 전수조사,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·활용(순환전시) 및 국가귀속으로 일원화된 국가관리체계 구축
 - * ('22~'23년 성과) 표본 DB구축 13,840점, 국가귀속 2,338점 ('24년) DB구축 7,000점(5억원)

④ 미래로 이어지는 무형유산 전승기반 확대

- (개방형 전승자 층원)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보유자 추천이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전승자까지 개방하여 확대 층원
 - * (현행) 5년 이상 이수자 대상 → (무형유산법 개정) 이수자, 일반 전승자까지 확대
- (고령화·소멸위기 종목 지원) 고령의 보유자 종목(갯일, 망건장 등) 우선 층원 및 소멸 위기의 취약종목(25종)·긴급보호무형유산(4종) 맞춤형* 지원
 - * 취약종목 전승자 '궁궐 전각 전시 공예품 제작' 참여 지원(신규, 5억원) 등
- (무형유산 저변 확대)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 확대
 - ❖ (근현대 무형유산 도입) 형성된 지 50년 이상된 근현대 무형유산(사물놀이, 부채춤 등) 제도 도입 연구
 - ❖ (국립기관 전승종목 지정) 국립국악원, 국립극장 등 국립기관 전승종목(궁중정제, 창극 등) 무형유산 지정 추진
 - ❖ (전승공동체 육성) 한국인의 삶과 밀접하고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공동체 종목 지정 확대(설화 등)
 - ❖ (비지정 무형유산)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·육성 지원 ('24년 30개 사업, 14억원)
- (전승자 처우 개선)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신설 등 전승자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전승여건 조성

우수 이수자 (신규 지원)	보유자 (지원 확대)	보유단체 (지원 확대)
270명 / 월 50만원	월 150만원 → 200만원	(일반/자율형) 월 360/550만원 → 380/580만원

- (대중성 확보)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·상품화, 안정적인 공예재료 수급·유통체계 마련 및 현대인의 취향을 반영한 고품격 전통공연 기획·육성 등 국민 향유 확산

2.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

①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

- (규제 개선)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 최소화
 - (영향진단 도입) 규제 간소화를 위해 '국가유산영향진단법'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 영향진단 도입 법적·제도적 기반 조성

❖ (법령 제정) 제정안 국회 심사 및 공포('24. 2월), 하위법령 제정·공포('25. 2월)

❖ (사전 컨설팅 시범운영) 수요조사(지자체, 5대 공사) → 핵심과제 선정(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 대상) → 사전컨설팅 시행(규제사항 신속 확인 및 해소방안 제시)

- (규제범위·강도 완화)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재조정 지속 추진, 既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규제강도 완화지역 확대
 - * (범위 조정) '24년 총청 등 598건, (강도 완화) '24년 총청·전북 393건
- (국외반출 제도 개선) 국제환경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일반동산 문화유산(국외반출 허가대상) 범위 축소 등 국외반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
 - * (현행) 제작 후 50년 미만 반출 가능 → (개선) 1946년 이후 제작품 반출 가능(시행령 개정)
- (공존·상생) 국가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주민 불편 해소
 - (국가유산 경관 개선)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·상생을 위해 노후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거주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개선사업 신규 지원
 - * ('24년)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(5개소, 5억원)
 - (민속마을 정주여건 강화) 국가민속마을 내 생활기반시설(통신, 상하수도, 가스배관망 등) 정비 지원 등 거주민 주거생활 편의 도모
 - * ('24년) 민속마을 3개소(하회마을, 무섬마을, 외암마을) 대상, 82억원 지원
- (국민부담 경감) 매장유산 민간 조사비용 지원 확대, 보존조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, 국가 주도 전국토 정밀 지표조사 실시 등 국민 부담 최소화
 - (조사비용 등 지원 확대) 진단조사(표본·시굴조사) 비용 지원 확대, 매장유산 현지·이전보존 조치 비용 지원 등 서민·영세업자 부담 완화
 - ❖ (진단조사 비용 지원)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대상('23년 150건, 30억원 → '24년 250건, 50억원)
 - ❖ (매장유산 보존조치 비용 지원) 매장유산법 개정('24년 上), 시행령 개정('24년 下), 지원('25년~)
 - (전국토 지표조사) 국가 주도 지표조사로 개발사업 시행자 지표조사 의무 면제,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로 국민 접근성 및 토지이용 예측가능성 제고
 - * '23년까지 89개 지자체 조사(8,341km²), '24년 24개 지자체 대상 지표조사(30억원)

② 국가유산 활용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

- (국가유산 방문 캠페인) 방문코스(10개) 활성화 및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방문자 맞춤형 고품격 활용 콘텐츠 신규개발·확대 운영('24년 68억원)
- (세계유산 관광 활성화) 대표 관광자원인 세계유산의 가치 향유·확산을 위한 세계유산축전 개최(4개 유산*, 60억원), 지역별 세계유산 활용·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(59건, 36억원)
 - * 백제역사유적지구(공주·부여·익산), 한국의 갯벌(순천),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, 가야고분군(고령)
- (궁능 콘텐츠 확충) 'K-관광' 랜드마크인 4대궁·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체험·활용 콘텐츠 확대 운영
 - * 10주년 기념 '2024년 궁중문화축전' 개최(연 2회 / 5월, 10월 / 31개 프로그램)
 - * 경복궁·창덕궁·덕수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 확대(560회→662회) 및 창경궁 야간 프로그램 신설
- (광역 활용모델 개발) 국가유산 주간 사업* (Korean Heritage Weeks) 개최, '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'** 운영 등 광역 단위 새로운 활용모델 마련('24년 신규, 6억원)
 - * 전국 국가유산 활용현장 둘러보기, 전국 문화유산 자랑(10월), ** 격년마다 광역지자체 1개소 선정
- (브랜드사업 육성) 인지도·확장성이 높은 우수 활용사업을 선정(연 10개 내외)하여 지역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집중 육성
 - * (선정기준) 콘텐츠 독창성, 지속가능성, 브랜드요소, (지원방안) 인증제, 다년도 지원, 홍보 컨설팅 등

③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없이 누리는 국가유산

- (보편적 향유환경 조성) 장애인·노약자·문화 소외지역 등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국가유산 관람·향유환경 조성 확대
 - (전국적 확대기반) 권역별 관람환경 현황조사*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
 - * ('24년)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 50개소 / 관람시설 조사 및 대안 마련, 연차계획 수립 등
 - (궁능 관람환경 개선) 보행약자를 위한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등 시설물 관람환경 개선·정비사업 확대('23년 5억원 → '24년 20억원)
 - (디지털 격차 해소) 문화 소외지역의 취약계층(초·중학교 및 특수학교)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디지털 실감체험관 운영 확대
 - * ('23년) 24개소 충청지역(4억원) → ('24년) 60개소 경기북부, 강원 산간지역(10억원)
- (취약계층 향유 확대) 지역민·장애인·소외계층 대상 특화된 궁궐 향유 프로그램 확대, 장애인 배려 콘텐츠 보급, 전통문화체험 신규 지원 등

❖ (궁궐 향유) 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확대 (38회, 1,054명 → 97회, 2,728명), 시각장애인 안내해설 코스 및 프로그램 확대(4대궁 코스, 50회 → 종묘 추가, 70회) 등 ❖ (콘텐츠 보급) '디지털 국가유산 부도(附圖)' 등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('24년 17억원) ❖ (전통문화체험)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예비부부, 미혼모 대상 전통혼례(60회), 전통 돌잔치(30회) 지원
--

④ 국민과 함께 가꾸고 지켜내는 국가유산

- (민관 협력) 국민·기업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 참여활동 지원
 - (풀뿌리 참여) 국가유산지킴이(전국 6.5만여명) 활동 지원, 청소년·청년 등 미래인재 참여 활성화,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 확산(1.7만명)
 - *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(7개), 청소년지킴이 학교(동아리) 지원, 활동 우수사례 시상 등
 - (기업 사회공헌) 국가유산 보호·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
- (교육 확산)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,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전국민 대상 국가유산 보호의식 함양

3.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

①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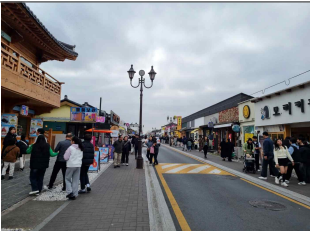
- (법제화 추진) '국가유산기본법' 上 산업 육성(제27조)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정책 제도화를 위해 '국가유산산업육성법(가칭)' 제정 추진
 - * (제정안 주요내용) 국가유산 산업 정의·범주, 전문인력 양성, 연구개발, 창업·유통·금융지원 등
- (국가유산 산업조사) 국가승인통계인 '국가유산 산업조사*'를 실시, 업종별 산업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관련 분야 정책수립 활용
 - * 약 1,500표본 사업체 매출현황, 종사자 현황 등 조사('24년 2월말 공표)
- (신산업 육성 연구개발(R&D)) 첨단과학기술 기업체·연구기관 협업으로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·활용기술* 개발 연구(12개 기술, 82억원)
 - * 수리용 목재 특대제 건조 및 함수율 측정기술, 나홀로 문화유산도난방지, 스마트 탐사장비 개발 등

연구개발 (민간 협업) ➡ 제조기술 지원 ➡ 사업화 ➡ 판로 확보
- (취·창업 촉진)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·교류·홍보의 장인 국가유산산업전 내실화, 관련 기업체 연계 청년인턴 사업 지원
 - * (산업전) 우수기업 발굴, 창업컨설팅, 일자리 박람회 등 취·창업 활성화 지원('24년 3억원)
 - * (청년 인턴) 취업경력 지원,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실질적 처우 개선('24년 90개 기관 100명)
- (분야별 산업 활성화) 대중성을 갖춘 전통문화상품 개발·판로 확대, 문화유산 활용 및 디지털 분야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

- ❖ (전통문화상품) 전통공예품 등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·상품화, 온·오프라인 판로기반* 확대
 - * 해외 판매 전문쇼핑몰 구축(신규, 5억원), KH물 상품 등록 확대, 팝업 쇼룸 운영, 공예박람회 참가 등
- ❖ (활용 산업) 활용사업 참여기관·단체 대상 콘텐츠 개발, 창업교육, 글로벌 홍보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❖ (디지털 산업)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자원 민간 제공·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* 활성화
 - * 게임, 웹툰, 3D프린팅, VFX영상, 실감형(VR/AR/XR) 콘텐츠 제작, 메타버스 분야 등

② 국가유산으로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

- (지역문화유산 활용) 개성 넘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, 답사, 공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, 지역 관광 견인
* ('24년) 야행(49건), 생생사업(150건), 향교·서원(99건), 전통산사(46건), 고택·종갓집(45건) / 172억원
- (야간 특화 콘텐츠) 국내외 관광객이 지역에서 하루 더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야간 특화 콘텐츠*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* (미디어아트) 국가유산과 디지털 기술 융합 콘텐츠(수원, 강릉, 진주, 고흥 등 7개소, 67억원)
- (역사문화도시 조성)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된 고도(古都), 근대역사 문화공간, 역사문화권 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

<p>고도 (古都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고도(경주, 공주, 부여, 익산) 지정지구 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* 한옥 지원, 담장·간판 등 가로경관 정비 등('24년 30억원) ● 고도 역사도시 조성으로 관광거점 구축('24년 93억원) * 서동 생가타·대통사 유적정비,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● 고도 확대 지정 (고령-대가야, 함안-아라가야, 전주-후백제 등) 	
<p>근대역사 문화공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8개 지역 대상 등록문화자원 정비 및 경관 개선 (목포, 군산, 영주, 영덕, 익산, 통영, 서천, 진해 / '24년 22억원) * 전선지중화, 가로경관 및 골목길 정비, 야간조명, 편의시설 등 	<p><경주 황남동 황리단길> * '23. 1.~9. 방문객 수(3,593만명) * 경주역사유적, 한옥, 맛집 등 이색적인 볼거리·즐거거리로 관광객 급증 → 지역상권 활성화</p>
<p>역사문화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비 선도사업(강릉, 나주, 해남, 함안) 착수('24년 18억원) ● 역사문화권별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(가야마한·후백제역사문화센터) 	
<p>세계유산 거점 지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백제왕도, 신라왕경 등 핵심유적 기반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* 조성 등 거점별 인프라 구축 * 익산센터('24.8월 개관), 부여센터('24년 발굴조사), 경주센터(신규, '24년 기본계획 수립) 	

③ 미래 국가유산의 포괄적·선제적 보호체계 구축

- (비지정유산 보호기반 마련)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(향토유산) 조사·목록화를 완료하고, 이를 토대로 관리·활용방안 마련
* ('20~'23) 208개 지자체 60,637건 조사 완료, ('24) 20개 지자체 12,000건 조사 예정
* 역사문화자원 관리·활용방안 연구 및 법제화 추진 등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
- (지역 관리기반 강화)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시행('24. 11.)에 대비, 배치기준 마련 및 전문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
*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 문화유산 전담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
- (등록문화유산 제도 확장) 새로 제정된 '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' 시행('24. 9.)에 맞춰 확장된 제도* 운영기반 마련
* 필수보존요소 지정, 예비문화유산 선정,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법제화('23)
- (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)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있는 유산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미래가치 선제적 보호·활용



김연아 스케이트 슈즈 88올림픽 굴렁쇠

< 예비문화유산 예시 >

* 기초조사 및 목록화, 운영규정 마련, 선정 공모전 추진 등

④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 기반 구축

- (데이터 축적) 과학적 보존·활용을 위해 지정유산 대상 3차원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 및 개별 분산된 원형기록정보 통합 DB 구축
 - * 국가지정·등록유산 4,000건 권역별 구축('21~'23년 2,190건, '24~'25년 1,810건 예정)
 - * 원형기록정보 수집·DB 구축('23~'24년 40만건 수집, 자연·근대·국외분야 등 100만건 구축)
- (데이터 활용) 축적된 고품질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유산 보존, 복원, 향유,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확대

보존·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산 훼손·멸실시 정밀 3D 데이터 활용 보수·복원(사례: 송례문, 노트르담 대성당) • 실물 복원이 어려운 대표 문화유산(황룡사지, 미륵사지),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('23~'25)
데이터 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문화유산 포털,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 제공(누적 2만 2천건) • 민간 클라우드(네이버) 원형기록 통합DB 개방 서비스 본격 개통('24.5월)
민간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이 국가유산 소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을 3D 에셋으로 제작, 보급 * ('24~'25년) 왕실의례, 무기, 무형유산, 국외소재유산 등 대상 약 1,400건 제작, '26년까지 3,000건 구축
콘텐츠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한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시·공간 제약없는 향유서비스 확대

4.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

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

- (종합대책 고도화)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('23.7. 수립)의 체계적·단계적 실행을 위해 중점과제 이행계획 수립('24. 상)
 - *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('23~'25, 관계부처 합동 / 국가유산 분야 10개 과제 포함)
- (연구개발 확대)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(R&D)* 신규 추진 및 기후변화 영향분석·대응방안을 위한 조사·연구 지속 추진
 - * 국가유산 피해방지·회복처리 및 적응관리 등 6개 기술('24~'28, '24년 15억원, 총사업비 231억원)

② 재해·재난 대비 상시 안전관리체계 강화

- (방재인프라) 국가유산 현장 방재시설·방재인력 등 방재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신속한 재난 예방·대응체계 구축

- ❖ (소방시설) 화재 취약 목조 문화유산 대상 소방시설 확충 ('24년 50건, 46억원)
- ❖ (방범시설) CCTV, IoT 시스템 구축 ('24년 70건, 41억원)
- ❖ (전기시설) 노후전기시설 개선 및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 구축 ('24년 25건, 25억원)
- ❖ (방재인력) 현장 안전경비원 배치 및 운영 미비점 개선 ('24년 634명, 107억원)
- ❖ (드론활용) 방재드론시스템(12개 지역 구축) 안정화 및 드론 안전점검반 운영 활성화

- (사각지대 관리 강화) 궁능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견고한 방재시스템 구축,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 - * 국가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('24.1월)

- ❖ (궁능) 궁궐 외곽 CCTV 확대('25년까지 110대 추가 설치), 안전관리 인력 증원, 야간 순찰 확대 등
- ❖ (국가유산 전반) 관리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방재시설·인력 확충
 - * 훼손 취약지역 긴급조사('24.1~2.)→국가유산 돌봄 정기모니터링 심층점검('24.3~4.)→지능형 CCTV 확대 설치('24~)
 - * 관리 사각지대 상시관리를 위한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및 돌봄 모니터링 인력 증원('25~)
- ❖ (교육·홍보) 국가유산 훼손행위 금지 온·오프라인 콘텐츠 제작·배포, 현장 안내판·홍보물 게시, 청소년 대상 학교교육 강화, 국민신고제 활성화 등

- (문화유산돌봄 고도화) 돌봄사업의 국가유산 상시모니터링을 강화 (취약지역 대상 매월 정기점검)하고 비지정유산까지 돌봄 업무범위 확장
 - * 돌봄 모니터링 결과가 정기조사, 관리계획 수립, 보수정비예산 반영과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
- (실시간 모니터링) 안전상황실 전문인력 보강, 관제시스템 개선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로 실시간 현장 상황관리 강화
 - * CCTV,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인력 2명 증원

③ 선제적·능동적 위기 대응으로 국가유산 피해 저감

- (취약지역 사전관리) 산지, 계곡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(신규, 10.5억원)
 - * ('24) 1차 실태조사(160건), 보호방안 연구(5건), ('25) 2차 실태조사(200건), 시범사업 착수(10건)
- (유형별 예방·신속대응) 풍수해, 흰개미 등 재해 유형별 선제적 방재를 강화하고, 피해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확대(37억원→41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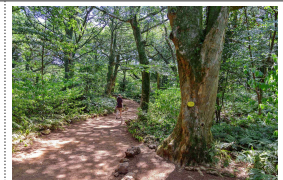
- ❖ (풍수해) 집중점검기간(4~6월) 운영, 유형별(목조, 석조, 능·분묘, 자연유산 등) 맞춤형 중심 집중점검
- ❖ (흰개미 피해) 흰개미 피해예방 긴급보수사업 확대로 생물피해 적기 대응 (18건→25건, 12억원)
- ❖ (자연유산) 천연기념물 동물 유전자원 동결·분산 보존, 식물 종자 시드볼트 영구 저장, 후계목 육성 등
- ❖ (석조 문화유산) 야외 석조문화유산 보호시설 지침 마련 및 보호각 개선

④ 국가유산 보호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

- (탄소흡수원 확충) 문화·자연유산의 보호공간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가유산의 가치와 기능 제고
 - * 조선왕릉·궁궐 역사경관림 조성 확대, 자연유산 (갯벌, 수림지 등) 지정 확대



<신안 갯벌>



<제주 비자림>

- (탄소저감 가치평가) 도심 속 4대궁·조선왕릉의 탄소저장량·흡수량 조사, 탄소 중립 기여도 분석을 통해 국가유산의 탄소 저감 공익적 가치 홍보
 - * 조선왕릉 23개소 수목조사('21~'23) 결과 탄소흡수가치 170억원, 공익가치 397억원 산출
 - * 탄소중립 현황판, 궁능 누리집 등 대국민 홍보('24~), '왕릉 600년 숲 백서' 발간('25)

5.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

①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 역량 강화

- (신규등재 추진) 유네스코의 변화된 등재환경*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유산, 인류무형유산,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쟁력 우위 선점

* 각 국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 건수 확대(연간 1건→2건)로 신규 등재 경쟁 심화

- ❖ (세계유산) '반구천의 암각화'('24.1월 신청서 제출, '25년 등재결정)
'갯벌 2단계'('24년 조사연구·지자체 참여 확대, '25년 신청서 제출, '26년 등재결정)
- ❖ (인류무형유산) '한국의 장담그기 문화'('24. 12월 등재결정), '한지'('24. 3월 신청서 제출, '26년 등재결정)
- ❖ (세계기록유산) '제주4·3사건기록물', '산림녹화기록물'('23. 11월 신청서 제출, '25년 등재결정)

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: ('23) 56건 → ('24) 57건 → ('25) 60건 → ('26) 61건

- (영향평가 제도 시행) 세계유산의 영속적 보존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설계 및 시행('24.11.)
*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및 운영지침 수립('24.10.), 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 추진('24.12.)
- (통합관리체계 구축) 시·도를 달리하는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추진('한국의 갯벌', '가야고분군' 등)
- (국제사회 영향력 확대) 국제해석설명센터 활동 기반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적 허브 역할 수행* 및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활동** 적극 참여
* 센터 건립 추진('24~'28) ** 아태지역 그룹에서 한국 포함 3개국 이 위원국으로 활동('27년까지)

②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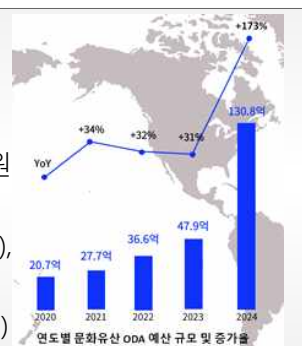
- (ODA 규모·대상 확대) 문화유산 ODA 규모 대폭 확대 및 협력국 다변화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공동유산 보호에 기여

❖ 문화유산 ODA 규모 확대 : ('23년) 48억원 → ('24년) 131억원 (173% ↑)

* 정부 ODA 규모 대비 비중('22년 0.1%→'24년 0.2%)

❖ 협력국 다변화 : 아시아 중심 → CIS·아프리카로 확장

- (아시아) 라오스 흥남시다 복원·보존(19억원), 파키스탄 간다라 관광자원 개발(13억원), 캄보디아 앙코르왓 보수정비(12억원, 신규)
- (CIS) 키르기스공화국 전통공예센터 조성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(16억원),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관광자원 개발(14억원)
- (아프리카) 이집트 라메세움 탐문 복원·설계,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(52억원)



- (협력분야 발굴) 기후변화, 안전방재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중남미, 태평양 도서지역 등으로 진출 확대
* 신규 ODA사업 개발 및 예비 타당성 조사(페루 마추픽추, 태평양도서국·아프리카 대상)

③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·활용기반 확대

- (환수기반 강화) 현지 조사·연구* 확대,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, 해외 언론매체 대상 공개매입 적극 홍보 등 환수전략 다각화
 - * 현황조사(소장목록 파악) → 실태조사(유물 조사·평가) → 테마연구(소장경위 조사) 연계 추진
- (유럽 거점 확보) 유럽 소재 문화유산 조사, 보존·활용 및 환수 협력 등 복합적 기능 수행을 위한 현지 거점 구축·운영(프랑스 파리)
 - * 국외소재 문화유산 약 20%(4만9천여 점), 유럽 19개국에 산재 / 현재 미국, 일본 거점 운영 중
- (현지 보호·활용) 국외문화유산 보존·복원 지원 및 전시 개최, 아카이브 DB 정보 공개 등 국내외 관심 제고 및 향유기회 제공

- ❖ (보존 지원) 포틀랜드미술관, 덴버미술관,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 유물 보존처리 지원(3점, 3.6억원)
 - ❖ (전시)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'철보산도' 디지털 실감 콘텐츠 한-미 공동 전시(3~9월)
 - ❖ (정보 제공) 독일 오틀리엔수도원 소장 한국사진 1,800여점 DB 구축·공유 등
- ('K-공유유산' 시범사업) 소재국과 역사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'K-공유유산' 대상으로 현지 보존·활용 협력사업 본격 추진
 - * ('24년)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유산 조사연구(신규), 국외사적지 탐방프로그램(확대) 등 추진

④ 전략적 해외홍보로 우리 유산 가치 확산

- (패러다임 전환) 유산정보 글로벌 접근성 강화, 지한파 육성 등 해외 홍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 유산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('24년 신규)
 - * 한국유산 지식정보 영문화 사업(영문도서 제작·유통,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등, 5.3억원)
 - * 트랜스내셔널 국제 공동연구 편당(한국 유산과 연계한 다국적 연구 지원, 5억원)



- (국제 표준화) 한국 대표유산의 고유명칭을 국제사전에 확대 등재 하는 '우리 유산 그대로쓰기' 캠페인 활동 지원
 - * (예시)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복(hanbok), 김치(kimchi), 태권도(taekwondo)처럼 떡을 'Korean Mochi'라고 하지 않고 'tteok'으로 표기하는 캠페인 전개
- (글로벌 콘텐츠) 글로벌 수요자를 겨냥한 고품격 글로벌 콘텐츠 ('24년 50편, 다국어(7개국) 서비스)를 제작하여 다양한 경로로 유통·홍보
 - * 글로벌 채널로 급부상한 문화유산 채널 구독자(112만명) 중 해외 구독자(73만명)
- (현지 홍보) 궁중문화축전 해외 홍보행사, 'K-무형유산 페스티벌' 공연(11월, 아르헨티나) 등 세계를 무대로 우리 유산 가치 확산